Bunker 200520 전태동

(중국 외교부)

**1. 코로나19 문제**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t1780224.shtml

2020年5月18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CNN记者：昨天，美国务卿蓬佩奥在节目中称，尽管美国政府仍然坚信疫情来源于武汉，但他现已不是完全（exactly）确定病毒到底来自何处。然而他仍然坚称中国没有做到足够的公开透明，因此美方依然要对中国政府的反应作出相关反制。你对此有何评论？**

　　赵立坚：一段时间以来，这个美国政客喋喋不休散布各种谎言，**回应他的谎言简直是浪费大家的时间**

**2. 미-중관계**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t1779560.shtml

2020年5月15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法新社记者：美国总统特朗普昨天称，他可能会切断与中国的关系。中方对此有何评论？**

　　赵立坚：**保持中美关系稳定发展符合两国人民根本利益，也有利于世界和平稳定**。当前，中美双方应继续加强抗疫合作，尽快战胜疫情，救治病人，恢复经济和生产。但这也需要美方同中方相向而行

**3. 한-중 정상간 통화**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t1779122.shtml

2020年5月14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来源： （供稿） （供稿）    　**韩联社记者：昨天，中韩两国元首在通话中商讨了习近平主席访韩等增进两国关系的议程和方案。中方对此有何评论？**

　　赵立坚：昨天晚上，习近平主席同文在寅总统通电话，就中韩抗疫合作、双边关系等深入交换意见，达成重要共识。双方均高度评价对方国家抗疫成果，一致认为中韩抗疫合作富有成效，不仅服务了两国各自抗疫大局，也为全球抗疫积累了有益经验，树立了典范。

　　关于双边关系，习近平主席表示，他高度重视发展中韩关系，愿同文在寅总统加强战略沟通，引领中韩关系迈上更高水平。**文在寅总统重申对习近平主席访韩的邀请和期待**，表示愿同中方加强合作交流，共同推动两国关系不断发展。

**关于你问到的具体问题，高层交往对引领中韩关系发展具有重要作用，双方一直就此保持着沟通。如果有这方面的消息，我们会及时发布**

https://www.fmprc.gov.cn/web/zyxw/t1778807.shtml

习近平同韩国总统文在寅通电话

来源： （供稿） （供稿）    2020-05-13

　　2020年5月13日晚，国家主席习近平同韩国总统文在寅通电话。

　　习近平强调，经过艰苦努力，中韩两国新冠肺炎疫情都得到有效控制。在共同抗击疫情过程中，中韩始终守望相助、风雨同舟、相互支持、相互帮助。中韩率先建立联防联控合作机制，创下相互疫情“零输入”纪录**。双方还在做好疫情防控前提下，率先开通重要急需人员往来“快捷通道”，保障地区产业链、供应链、物流链顺畅运行**。中韩抗疫合作富有成效，不仅服务了两国各自抗疫大局，诠释了“好邻居金不换”的道理，也为全球抗疫积累了有益经验，树立了合作典范。**中方愿同韩方继续加强联防联控、药物和疫苗研发合作，支持世卫组织发挥应有作用，在联合国、二十国集团、东盟与中日韩等多边框架内加强沟通和协调，不断推进双边和国际抗疫合作。**

　　习近平指出，中韩是搬不走的友好近邻。两国在实现共同发展繁荣、维护地区和平稳定、捍卫多边主义和自由贸易方面共同利益越来越多，在拓展各领域务实合作、更好造福两国人民方面空间越来越大。**我高度重视发展中韩关系，愿同你加强战略沟通，引领中韩关系迈上更高水平**。

　　文在寅表示，在习近平主席坚强领导下，中国抗击新冠肺炎疫情取得明显成效，我对此高度评价，预祝即将召开的中国全国两会圆满成功！韩中两国抗击疫情的思路和举措相似，抗疫合作卓有成效，特别是率先开通“快捷通道”，传递了两国团结合作的有力信号，也为世界树立了典范。韩方愿同中方继续沟通合作，为推动国际社会加强团结互信、战胜疫情发挥积极作用。韩方期待同中方保持密切沟通，推动韩中关系不断发展。

(한국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618

**한·중 정상통화 관련 서면브리핑**

2020-05-13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9시부터 9시34분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자국 내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각각 설명하면서 양국 간 방역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문 대통령님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효율적으로 통제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어 축하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방역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정상통화 이후 한중 양국간 코로나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이 잘 진행되어 왔다”면서 “중국의 가장 큰 정치행사인 양회가 다음 주 개최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주석은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며 지난 3년간 양국관계가 크게 발전한 만큼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중 당국이 두 나라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활동 보장을 위한 ‘신속통로’ 제도 신설을 한 것이 대표적인 협력의 모범사례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양국은 신속통로제 신설에 합의하면서 기업인들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뒤 5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해 우리 기업인 2백여 명이 입국해 오는 13일부터 현지에서 출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신속통로의 적용대상과 지역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전세계에도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 문제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시 주석은 “금년중 방한하는데 대해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에 있어 시 주석님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양 정상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 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성사되도록 협의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시주석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일관된 지지의사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양 정상의 통화는 지난 2월 2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 주석은 지난 3월 13일 문 대통령에게 전문을 보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과의 연대감 및 협력의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입장 등을 밝혔고, 문 대통령도 이틀 뒤인 15일 감사 답전을 발송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3월 26일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에서는 영상으로 만났습니다.